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첫 국내대회 오늘 제주서 개막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이정은·김지현·최혜진 등 출동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국내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한다. 지난 시즌 6관왕 이정은(22·대방건설)을 비롯해 개막전 우승자 최혜진(19·롯데) 등 국내 최강자들이 총출동해 기선 제압에 나선다.

2018시즌 KLPGA 투어 4번째 대회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이 5일부터 나흘간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20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매년 국내 개막전이다. 앞서 열린 3개 대회는 베트남과 브루나이 등 해외에서 진행됐다.

지난 시즌 삼급 순위 상위 랭커들이 총출동하는 등 시드를 가진 선수들이 대부분 나선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거의 매주 대회가 이어진다.

지난 시즌 4승과 함께 대상, 삼급왕, 최저타수상 등 6관왕을 차지한 이정은이 생애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

둔 이정은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KLPGA 투어를 휩쓸었다. 2주 연속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이정은은 “이 대회가 처음으로 5차례 토폰10에 들었다. 타이틀방어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에서 국내 복귀 후 첫 정상 차지한 장하나(26·BC카드)는 호시탐탐 최강자 자리를 노린다.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에서 8년 만에 우승을 맛본 홍란(32·삼천리)도 베테랑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지현 돌풍’의 주인공인 김지현(27·한화큐셀), 김지현(27·롯데), 오지현(22·KB금융그룹) 등도 우승 경쟁을 펼친다.

한편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오키와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진다.



최혜진과 이정은



김연경, 4개국 우승 실패

상하이, 텐진에 역전패 ‘준우승’

김연경(상하이)의 중국 정복이 무산됐다.

상하이는 3일 중국 상하이 푸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 텐진과의 챔피언결정전(7전 4선승제) 7차전에서 플세트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3(25-21 22-25 18-25 22-25 14-16) 역전패를 당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시리즈 전적은 3승3패다. 김연경은 이날 22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2000~2001시즌 이후 17년 만에 챔피언 등극에 도전했던 상하이는 우승의 꿈을 다음으로 미뤘다. 특히 상하이는 챔피언결정전에서 3승1패로 우위를 잡았지만 5~7차전을 모두 내주며 뼈아픈 역전 우승을 허용했다.

2006년 흥국생명을 통해 프로 데뷔한 김연경은 V-리그에서 세 번 우승(2005~2006, 2006~2007, 2008~2009)을 이뤄냈고 일본 JT마베라스 시절에는 2010~2011 시즌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이후 유럽 최고 무대인 터키 리그로 진출해 6시즌 활약하며 당시 소속팀 페네르바체에 리그 우승 2회(2014~2015, 2016~2017) 터키 컵 2회(2014~2015, 2016~2017) 유럽배구연맹(CEV) 챔피언스리그 1회(2011~2012) 우승을 안겼다.

6년간 몸담은 페네르바체를 떠난 김연경은 중국 리그에 도전했다. 김연경의 중국 리그에 도전했다. 김연경의 중국 리그에 도전했다. 김연경의 중국 리그에 도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투타 천재’ 오타니, 데뷔전 선발승-2G만에 첫 홈런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3·LA 에인절스)의 시범경기 부진에 따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인 가. 오타니는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첫 타석에서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틀 전 오를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 첫 선발 등판해 데뷔전 승리를 따낸 오타니는 데뷔 첫 홈런포까지 가동하며 투타 모두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30일 오를랜드와 개막전에 이어 두 번째 지명타자 경기다. 개막전에서는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오타니는 2-2로 맞선 1회말 2사민투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오타니의 타석 때 클리블랜드 선발 조시 톨린의 폭투를 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계속된 2사 2, 3루에서 오타니는 6구 74마일(약 119km)짜리 커브를 놓치지 않고 받아쳤다. 이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며 스리런 홈런이 됐다. 6번째 타석 만에 첫 홈런을 신고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오타니의 홈런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오타니가 자신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첫 홈런을 3점 홈런으로 장식했다. 이 점수로 에인절스가 클리블랜드를 앞섰다. 오타니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클리블랜드전 스리런·MLB닷컴 “의심의 여지없다”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8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 첫 타석에서 스리런 홈런을 때렸다.

오타니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 3회 이닝 경기 두 번째 타석에는 2루수 글러브를 맞고 외야로 빠져나가는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8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다시 한 번 타격감을 뽐냈다. 풀 카운트 승부 끝에 가운데 물린 빠른 공을

한편 에인절스는 이날 오타니의 활약과 투타 조화에 힘입어 클리블랜드를 13-2로 대파하고 전반기 5승 1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페이스를 높였다.

오타니는 일본프로야구에서 5시즌 동안 투수로 42승 15패 7세이브 평균자책점 2.52의 성적을 거뒀다. 타자로는 타율 0.286 48홈런 16타점을 기록했다. 2016시즌에는 타율 0.322 22홈런 67타점으로 퍼시픽리그 MVP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에인절스는 이날 오타니의 활약과 투타 조화에 힘입어 클리블랜드를 13-2로 대파하고 전반기 5승 1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페이스를 높였다.

토론토 감독 “오승환, 연투 후 구속 저하?...걱정 안해”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첫 연투 경기에서 구속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토 감독은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

MLB닷컴은 4일(한국시간) 오승환이 첫 연투를 한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구속 저하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MLB닷컴에 따르면 오승환은 3일 화이트삭스전에서 지구 최고 구속이 91.7마일(약 148km), 평균 구속은 90.3마일(약 145km)이었다.

전날 뉴욕 양키스전에서는 최고 구속 93.2마일(약 150km), 평균 구속은 91.8마일(약 148km)과 비교해 최고 구속은 2km, 평균 구속은 3km 정도 하락했다.

오승환은 양키스전에서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반면, 이를 연속 등판한 경기에서는 첫 피홈런을 허용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이에 대해 존 기브스 토론토 감독은 시즌 첫 연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구속 저하라고 오승환을 두둔했다.

기브스 감독은 “오승환이 올해 처음으로 연투했다. 불행 투수들은 시범경기에서 연투를 경험한 뒤 정규시즌에 들어가는데 오승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MLB닷컴, 첫 연투 때 구속 2~3km 하락 지적



이어 “오승환이 경기를 마무리한 날에는 좋은 공을 던졌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기브스 감독의 이야기처럼 오승환은 올 시즌 스프링 캠프가 시작된 뒤 토론토와 계약했다. 앞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매디컬 테스트에서 틀어졌다.

여기에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시범경기에 단 두 차례만 등판했다. 이를 연속 등판해 공을 던질 시간

적 여유가 없었다. 오승환은 다소 무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막전부터 마운드에 올랐다. 2, 3일에는 연투를 했다.

오승환은 앞으로 3세이브를 추가하면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하게 된다. 연투가 익숙한 만큼 시즌을 치를수록 구속 저하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JS컵 출전 U19 대표팀 확정, 이강인 합류 불발

2018 수원 JS컵 U-19 국제청소년 축구대회에 나서는 U-19(19세 이하) 대표팀이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 3일 수원 JS컵에 참가하는 U-19 대표팀 22명의 명단을 밝혔다.

기대를 모은 이강인(발렌시아)과 김정민(리퍼팅)은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무산됐고 정우영(바이에른 뮌헨)은 부상으로 빠졌다. 조영욱(FC 서울), 전세진(수원삼성), 오세훈(울산현대), 박태준(성남FC)은 소속팀과 차출 협의의 중이어서 최종 합류 여부는 미정이다.

안준혁(비야레알)과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조진우(마쓰모토 야마가)가 선발됐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에서 활약한 엄원상(이주대), 이상준(부산아이파크), 고준호(보인고)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학선수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K리그 6명, 해외파 3명, 고교 선수 2명으로 구성됐다.



정정용 감독은 “수원JS컵은 모로코, 멕시코처럼 익숙하지 않은 상대를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다. 개인 기량과 팀 조직력을 조금씩 끌어올려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FC U-19 챔피언십 본선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U-19 대표팀은 9일 경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K리그, 대학팀과 한차례씩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 18일 모로코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일 멕시코, 22일 베트남을 차례로 상대한다. 모로코전과 베

◇2018 수원 JS컵 U-19 대표팀

- ▲골키퍼 = 민성준(고려대), 박지민(수원매트로고)
- ▲수비수 = 이재의(강원FC), 이지솔(대전시지중), 황태현(안산그리너스), 김현우(디나모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조진우(마쓰모토 야마가, 일본), 김보섭(한양대), 안성민(경희대), 이규혁(동국대), 최준연(세대), 고준호(보인고)
- ▲미드필더 = 고재현, 임재혁(이상 대구FC), 이상준(부산아이파크), 안준혁(비야레알, 스페인), 엄원상(이주대), 김진현(홍익대), 정호진, 허덕일(이상 고려대)
- ▲공격수 = 김현우(중앙대), 신상은(성균관대)

트남전은 SBS스포츠, 멕시코전은 SBS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U-19 대표팀은 5월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톨통컵에도 참가한다. 12개국이 출전하는 톨통컵에서 프랑스, 스코틀랜드, 토고와 같은 조에 속했다.